



불교를 왜 신앙하는가? 삼보(三寶) 즉 부처님과 불법, 스님을 믿고 의지하며, 명승대찰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모든 번뇌를 해결하고자 함이 아니던가?

불법은 모든 번뇌를 해탈하여 성불하는 인생 최대의 일대사(一大事)이다. 불자들은 석가세존이 생로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출가한 이러한 뜻을 잊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불할 것인가를 궁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석존은 자신의 유훈(遺訓)을 유독 비밀장(秘密藏)이라고 별칭(別稱)하는 열반경에 설해 놓았다.

다시 말하면 비밀을 숨겨 놓았다는 것이다. 석존이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석존의 마지막 유훈을 알고자 하는 자는 열반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다.

석존은 왜 감로의 정도를 설하지 못했나?

열반경 1권

석가세존은 열반에 들 때 가섭존자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였다. 가섭은 “부처님은 생사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니 저희들에게 번뇌를 여의는 법인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설하고 열반에 들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석존은 이에 대해 분명한 설법을 하지 않고 열반하셨다(열반경 1권). 이에 따라 지금도 불자들은 덕 높으신 스님들께 감로(甘露)의 법을 설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고승(高僧)대덕(大德)들의 설법이 과연 감로의 법인가? 석가세존도 설하지 못한 감로의 법을 그 제자들인 스님들이 설할 수 있겠는가? 감로의 법을 설하는 존재라야 열반경에서 말하는 보살마하살(미륵불)이다.

불법승(佛法僧) 삼보는 방편이다 열반경 8권

석가세존은 “나의 몸 가운데 탐이나, 절을 짓거나, 예배 공양하게 하는 것과, 나의 법신이 귀의처를 삼음으로써 일체 중생이 다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참이 아닌 삿되고 거짓된 법이다. 내가 마땅히 차제에 진실한 법을 설하리라(열반경 8권).”라고 열반경에 오늘날 불자들의 행태가 잘못 될 것을 알고 폭탄선언을 미리 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다. 지금까지 열반경을 읽어본 모든 불자들이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여 알고 있었는가. 탐돌이나 불공을 드리는 것이나 불법승 삼귀의(三歸依)가 다 방편이요 거짓이라는 것이니 공염불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진정한 삼보(三寶)는 미륵불이며, 미륵불에 귀의하여 성불을 이루는 데 있다는 것이다.

석존은 감로(甘露)를 내려야 참해탈자요 미륵부처님이라고 했다: 열반경 5권

석존은 “지금의 불도수행은 소승에 머물러 기복에 안주하고 성불하지 못함으로 중생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불상이나 당각(堂閣)을 모두 깨뜨려 버려야 한다(법화경)”고 오늘날 불자들의 행태를 예견한듯이 법화경에 설해 놓으셨다. 또한 열반경에도 오늘날 불자들이 석존의 뜻을 저버리는 행태를 많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 석존의 진실한 뜻을 알아야 참불자라고 할 수 있겠다. 석존의 최후의 유교(遺教)인 열반경에는 “감로가 있는 곳에 죽음이 없고, 감로를 내리는 자가 진짜 해탈자다(열반경 5권).”라며 감로의 주인공에 대해서 열반경 전편에 설해 놓으셨다. 감로의 주인공 미륵불이 출현하여 불생불멸의 도와 부처님의 참 성품인, 상락아정(常樂我淨)을 설하고 계신다. 승리제단은 중생구제의 대승정신을 온몸으로 구현하고 계신 미륵불이 직접 역사하시며 감로를 내리는 곳이니 진실한 불자들은 이곳으로 와야 할 것이다.

기존불교를 뒤엎는 석가세존의 말씀,

“나와 석가를 버리고 보살마하살을 찾아가라”



3000년 만에 해독되는
'이자삼점'

팔 만 대 장 경 의 비 밀 장 수정판

감로의 甘露 도로 道 생로병사 해탈하리라

열반경만 왜 유독 비밀장(秘密藏)이라고 했을까?

불교계는 왜 열반경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는가!

- 열반경 상 보살마하살은 석가를 지칭하지 않는다.
- 불법승 삼보는 진삼보(眞三寶)가 아니다.
- 석가세존은 열반에 들지 못했다.
- 석가세존은 감로(甘露)의 정도(正道)를 설하지 못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5695-8971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戸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